
1. 유교 사상의 연원과 전개

〈공자의 사상〉 : 성선의 입장은 맞지만 성선설을 주장하지는 않음.

1. 배경 : 공자가 활동했던 춘추 시대는 기존의 가치관이 무너져 가던 혼란기. 인을 통해 도덕성(=예) 회복을 꾀함

〈공자의 사상 - 개인〉

2. 인(仁) : 남을 사랑하는 마음, 하늘로부터 받은 인간다움 -> 도덕성의 내적 근거(=내면적 사회규범)
예의 바탕이 되는 최고의 가치

3. 예(禮) : 타인을 배려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실현된 것 -> 도덕성의 외적 근거(=외면적 사회규범)
공자는 사람들이 극기복례할 것을 당부

+ 극기복례 : 개인의 욕심을 극복하여 진정한 예를 회복함

+ “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”

2+3. 인과 예를 잘 실천하고, 스스로 도덕적이며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 -> 군자

4. 효제 : 인의 본질, 인의 출발점.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형제와는 공경 -> 인간 전체에 대한 사랑으로 확대
= 준비친소의 분별애 (가깝고 먼 것을 분별하여 가까운 것부터 사랑하라)

5. 충서 : 인의 실천, 도덕적 일관성

4+5. 효제의 확대 : 충 : 진실한 태도를 지니고 자기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

서 :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충의 태도를 지키는 도덕적 일관성

= “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” = 역지사지/추기급인의 태도

〈공자의 사상 - 사회〉

6. 정명 : 사회 구성원들이 각기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

= 주어진 이름에 부합하는 삶을 살라.

7. 덕치주의 : 백성을 지도자의 덕성과 예로 교화하는 것

덕치야말로 유교가 추구하는 최고의 통치방식이며, 덕치를 통한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공동체의 목적을 달성 가능하다고 봄 -> 수기안인 사상 (군주 스스로가 덕 있는 사람이어야 백성을 교화시킬 수 있음)

※ 공자가 법률과 형벌에 의한 통치를 부정한 것은 X. 덕치 > 법·형벌

8. 사회적 약자 배려 -> 복지 : 재화의 양보다 재화의 고른 분배를 걱정해야 함. 효율성 < 형평성

-> 가난하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함께 잘 사는 세상

9. 교육을 통한 정의 실현 강조 : 국가가 교육을 통해 사회를 정의롭게 할 것을 강조함

〈맹자의 사상〉

1. 사단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을 근거로 성선설 주장 -> 사단확충 / 존심양성 = 존양성찰 (선한 본성을 보존, 길러야 함)

2. 사단 (인·의·예·치를 구현하기 위한 네 가지 단서)

① 측은지심 : 불쌍히 여기는 마음

② 수오지심 :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

③ 사양지심 : 양보하고 공경하는 마음

- ④ 시비지심 :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
3. 맹자의 인·의·예·지 = 누구나 지켜야 할 덕목
- ① 인 : 따뜻한 사랑의 감정, 사람의 본질 (공자의 사상 계승)
- ② 의 : 타고나는 것으로, 일을 처리하는 마땅한 도리
- ③ 예 : 다른 사람을 공경하고 양보하는 마음 = 사양지심
- ④ 지 :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지혜 = 시비지심
4. 의는 타고나는 것으로, 양지와 양능을 따른다 = 배우지 않아도 알고, 배우지 않아도 행할 수 있음
 의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, 무슨 일이 있어도 올바른 도리를 실천하는 것
 -> 한 번의 실천 X. 옳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하여 실천함으로써 의를 기를 수 있음
 -> 호연지기(도덕적 실천을 통해 조금씩 생성되는 일종의 기운. 잘 갖추면 매우 강건해짐) 강조 -> 호연지기를 갖춘 사람 = 대장부
5. 사회적인 측면
- ① 물리적인 강제력에 의존한 폐도정치 비판 -> 덕치를 근간으로 한 왕도 정치 주장
- ② 백성의 경제생활을 항상 강조 -> 백성에게 일정한 생업이 있어야 변치 않는 도덕성이 생김
 -> 향산(꾸준한 생업), 향심(선한 본성)
 -> 군주는 백성들의 경제생활을 넉넉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
- ③ 민본주의 역성혁명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경고 (※공자는 혁명을 주장하지 않음)
 = 정명 + 민본 -> 역성혁명
 = 임금이라 하더라도 백성들의 신뢰 없이는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, 임금의 자리를 바꾸는 혁명(역성혁명)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 (백성 > 국가 > 군주)
6. 아리스토텔레스와의 비교
- 덕을 갖춘 사람 -> 탁월한 사람
 - 인간의 목적 : 행복을 찾는 것
 - 지성은 교육을 통해 얻고, 지혜로 나아간다
 - 품성은 습관의 결과

<순자의 사상>

1. 성악설 주장 :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의 견해를 부정
2.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어서 악하나, 인위적인 교육에 의해 선해질 수 있다고 주장
 옛 성인들의 가르침(=예)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
 = 화성기위(인위적인 예를 가르쳐서 배운 대로 살아가면 사회의 혼란이 줄어든다)
 -> 개개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막연히 의지하려는 주관적 수양론 비판
3. 환경의 중요성 강조
4. (개인) 예를 ①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지켜야 할 도덕규범으로 봄 -> 강제적인 도덕성
 ② 인간이 욕망을 원만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과 한계를 제공함으로써 분쟁을 막는 원리
 ③ 각각 자신에게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게 하는 기준
5. (사회) 예를 ① 국가를 운영하고 통치하는 기준으로 삼음
 ② 예에 근거하여 상과 벌, 법과 제도를 통한 통치를 강조
 ③ 한비자의 법가 사상에 영향을 줌